



남아프리카 노동운동 방문기

김경순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선전홍보국장

설레임 안고 찾아간 남아프리카

남아프리카에 다녀온 이후에도 나는 아직도 아프리카 하면 티몬과 풍바가 “하쿠나 마타타”라고 소리치며, 멀리 엄마 곁을 떠난 장난꾸러기 어린 사자 심바를 위로하는 장면...,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꼬끼리 부대가 행진하는 모습을 상상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인종차별정책”, “만델라”, “희망봉” 정도였다. 남아프리카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셴텀버 보고서』와 코사투, 즉 남아프리카노동조합회의(Congress of South African Trade Unions)에 대해 비로소 읽기 시작했다. 내 발동에 떨어진 상황이 아닌 많은 것들에 대해 관심은 있었지만, 내

발동의 불을 끄기 바쁠 뿐 열정적인 고민이나 심도 깊은 연구를 해 볼 생각은 꿈도 못꾸고 살고 있었다. 아프리카로 떠날 즈음 나는 솔직히 전화벨도 울리지 않고, 신문과 방송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곳으로 그냥 멀리 떠나 쉬고 싶을 때였다. “근심과 걱정 모두 떨쳐버려 욕심 버리면 즐거워요.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처럼.

출국을 불과 일주일 남기고 남아프리카에 가기로 결정되었고, 국가보안법 초과자(?)라는 이유로 인권대통령의 나라 국가정보원의 여론심사 기간이 길어져 공항 집결시간 18시간을 남기고, 5일만에 여권이 나오는 바람에 준비없이 무작정 짐을 나서는 꼴이 되었다. 그래도 공공연맹 대외협력국장님의 당부만은 잊지 않고 포장된 김치 6개와 맥주 8개, 신라면 1박스(?)와 크지 않은 배낭 하나만을 메고 비행기를 탔다. 태국행 비행기를 타고 홍콩을 거쳐 방콕에서 5시간여를 기다린 끝에 남아프리카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이미 어두워진 하늘로 날아오른 비행기는 엔진소리를 멈추지 않고 바람을 가르며 망망한 우주로 향해하는 듯 했다. 많이 지친 탓인지 남아프리카까지 11시간 날아가는 동안 기내식으로 나오는 저녁도 먹지 못하고 꿀아 떨어지고 말았다. 얼마를 잤을까? 아프리카의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면서 승무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사람들도 하나 둘씩 깨어나기 시작했다. 창밖을 보니 땅으로

착각될 정도로 커다란 잿빛 구름 위로 붉은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설레임을 안고 내린 요하네스버그공항은 새벽 5시 30분이었다. 시차가 무려 7시간이나 나고 백인보다는 흑인이 많은 나라. 땅덩어리는 남북한을 합한 크기의 두세 배쯤 되는데 인구는 고작 3,800만이고, 흑인이 70%, 백인이 30%에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나라.

이 나라에 발을 내디딘 우리 민주노동당 방문단은 3명으로 남자가 5명 여자가 3명이었고, 8명중 6명이 채용 상근자로 금속연맹, 공공연맹, 민주노동 등에서 일하는 동지들이었다. 까만 매직 글씨로 COSATU라고 쓴 하얀 종이를 들고 서있는 코사투 국제국장 다미니씨를 만났다. 반가웠다. 다미니씨는 경중하고 마른 체구에 가죽점퍼를 입고 있었다. 서투른 영어로 인사말을 나누며 악수를 하고 이때부터 우리들에게는 천사나 다름없는 한국통신노조 국제국장인 이배근 동지의 빠른 영어와 통역이 시작되었다. 공항에서 우리와 같은 비행기를 탄 인도네시아 대표 디타를 만났고, 그래서 9명이 두 대의 차에 나눠타고 회의장으로 가기로 했다. 나는 다미니씨가 운전하는 빨간 쥘차를 타게 되었는데 차에 붙은 코사투의 꿈이 담긴 포스터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공항에서 회의장까지는 1시간 이상이 걸렸는데, 출근시간이어서 그런지 쏟아져나온 차들에 2차선 도로와 교차로마다 많이 막혔다.

영어와 바다 와 소웨토

요하네스버그는 사방을 둘러보아도 산이 없다. 산이 있다면 그냥 그것은 아트막한 구룡일 뿐이다. 초록빛 열대림 대신에 나무도 별로 보이지 않는 황토빛 지평선만이 서 있다. 지평선은 점점 멀어져 보랏빛에서 잿빛으로 다시 우유빛으로 바뀌어 하늘과 맞닿아 끝이 없어 보였다. 모든 도로는 거침없이 쪽쪽 뻗어 있고 차들은 시원스럽게 달렸다. 요하네스버그주와 프레토리아 주를 둘러 보았지만 정글 대신에 물기 없는 황토면지가 날리는 황량한 벌판이 더 많아 보였다.

우리는 태국행 비행기에서부터 영어의 바다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다. "Beef, Chicken, Pork..." 생존을 위해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 무엇을 먹을 것인지부터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전자수첩을 가진 사람이 열심히 단어를 찾기도 하고 그럭저럭 고막을 괴롭히는 영어에 친숙해져 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통역을 통해 심하게 빠르게 말하는 공식 회의와 토론, 여러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도대체 알아먹을 수 있는 단어가 몇개 되지 않고 인사말과 자기 소개를 하고 나면 끝이다. 우리의 짧은 영어 실력을 간파한 코사투 형제들은 쿡글리쉬와 영어 한두 단어만 말해도 감을 잡기 시작했다. 공부로서의 영어가 아니라 국제연대의 절실한 도구로서 영어가 실감되기 시작했다. 모두들 한국에 돌아가면 반드시 영어를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했다.

남아프리카 방문 첫날 흑인 집단 거주 지역인 소웨토라는 지역을 방문했다. 소웨토는 흑인 집단 거주지역이고 만델라가 살았던 집이 있어서 유명해지기도 했지만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이 폭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더 유명한 명소가 되었다 한다. 소웨토에서의 투쟁은 영어를 공용어로 가르치는 학교에서 영어를 하지 못한다고 흑인 소년들 백인 선생이 때리면서 이에 항의하던 시위가 인종차별반대 투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한다. 백인정부는 시위진압을 위해 발포하여 300여명이 사망하는 등 1976년 소웨토지역의 민주화투쟁을 계기로 자유와 평화와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이 폭발적으로 발전하였다고 한다.

이 기념공원의 기념비를 만델라가 대통령인 이후에 세웠다는 데도 비석도 너무 조그맣고 건물도 지저분하고 양쪽으로 다섯 개씩의 콘테이너 박스에 당시의 사진과 관련 기사와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었으며, 주변에는 칠조망이 둘러쳐져 있었다. 그 사진 중에 최초의 발포 사망자를 안고서 오열하는 부모의 사진을 보면서 87년 6월 항쟁 때 한 대학생이 이한열 열사를 안고 서 있는 사진이 문득 머리를 스쳤다. 공원 주변 황토 면지가 날리는 길가에 기념품을 파는 노점이 여러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소웨토지역의 투쟁을 상징하는 모자, 당시 투쟁 장면 사진을 박은 기념 티셔츠, 토산품 등을 팔고 있었다. 또 이 공원에서 멀지 않

세계화로 인한 민영화, 비정규직의 증가, 다국적 기업의 횡포 등이 확산되면서 21세기는 모든 노동자가 똑같은 처지로 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노동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것이다.

은 곳에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살던 조그만 집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만델라는 대통령에서 물러난 후 다른 곳에서 새 부인하고 살고 있다고 했다. 만델라의 집 앞길은 붉은 황토길이었으며, 그의 집에는 무성하게 자란 뿔나무가 서있고, 오디가 짙은 보랏빛으로 익어 길가에 떨어져지고 있었다.

세계화에 대항하는 남반구 연대회의(SIGTUR)

2년에 한 번씩 5번째 열리는 SIGTUR(Southern Initiative on Globalisation Trade Union Rights)회의는 자본의 세계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전략과 국제연대에 대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제기했다.

개회식에서 코사투 사무총장 바비는 "자본의 세계화에 맞서 노동자의 국제연대가 필요하다. 특히 세계화로 인한 민영화, 비정규직의 증가, 다국적 기업의 횡포 등이 확산되면서 21세기는 모든 노동자가 똑같은 처지로 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노동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자주

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다.

5일 동안의 회의의 내내 11개국(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파키스탄, 인도,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홍콩, 캐나다) 100여명의 참가자들은 이 화두를 중심으로 치열한 고민과 토론에 매달렸다.

둘째 날에는 우리나라의 노동법 개혁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담은 비디오, 인도네시아에서의 투쟁, 오스트레일리아의 리오네토의 투쟁을 주제로 한 비디오를 보았다. 그리고 이 세 나라 대표는 자본의 세계화로 인한 각국에서의 신자유주의 정책 반대를 위한 투쟁에 대한 연설을 하였다. 또한 다국적 기업 리오네토에 대항한 호주 광산노조의 12개월간의 파업투쟁 사례를 놓고 분반토론을 전개했다. 분반 토론에서는 다국적 자본인 리오네토의 작업장 폐쇄 조치의 본질, 리오네토 투쟁에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다. 분반토론 후 리오네토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전체 회의에 분반별로 보고되었는데, 이 가운데 호주 항만노조의 리오네토에 항의하기 위한 4일간의 연대파업 사

례가 보고되었다. 특히 호주항만노조와 남아프리카운수노조의 위원장이 국제 연대투쟁을 결의하는 결의문에 양 노조 위원장이 함께 서명하고, 이를 교환하는 결의식을 진행할 때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또한 자본의 세계화에 따른 각국의 구조조정, 공공부문의 민영화, 사회복지정책의 축소, 노동정책 현황에 대한 분반토론이 진행되었다. 여기에서 뉴질랜드 정부의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에 모든 참가자들은 혀를 내둘러야 했다. 1991년 까지 노동조건, 조직률, 노동법 등이 거의 최상의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최악의 상태로 돌변해 있었다. 뉴질랜드 정부는 극단적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행하여 민

영화, 시장개방, 노동시장 유연화를 밀어붙였고, 노조조직율이 60%에서 18%로 급락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사회세력으로서 힘을 잃고 임금 인상을 협상하는 대리인 정도의 역할로 전락했다는 보고를 들으며 가슴이 아파 왔다. 김대중 정부의 부분별한 구조조정,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해의대각, 비정규직노동자의 급격한 증가, 노조조직율의 저하 등 우리의 상황을 보고하자 "상황이 너무나 똑같다"며 참석자들은 "same"(같다)이라고 소리쳤다.

2000년 공동의 May Day(노동절) 때 만나자

남반구연대회의가 열리는 요하네스버그는 봄에서 여름으로 가고 있었다. 봄 날씨



남반구연대회의(SIGTUR)에 참가한 각국 노조강부들

사회적 조합주의에 대한 코사투의 생각은 그 동안의 코사투의 투쟁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방향이라는 답변이다. 그 동안 코사투의 현장투쟁은 임금상승에 맞춰져 왔다. 이에 노조운동의 전략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무와 사회적 기여(Social Service)라는 고민 속에서 나온 개념이다.

는 우리 나라의 전형적인 가을 날씨로 낮에는 햇볕이 뜨거우나 습도가 거의 없어 그늘이나 건물 안에 있으면 시원하고 밤에는 쌀쌀한 편이었다. 아프리카에 갈 때 잔뜩 여름옷만 챙겨온 사람들은 감기들기 딱 좋은 날씨였다. 우리는 10월 29일까지는 인쇄노동자훈련센터, 그리고 11월 4일까지는 광산노동자 훈련센터에 머물렀는데 현대적 시설로 깔끔한 편이었다.

요하네스버그는 남아프리카에서도 가장 많은 폭전이 머물고 있고, 그래서 범죄가 많은 도시였다. 그래서 코사투에서는 한국인과 일본인을 표적으로 삼은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낮에도 홀로 거리를 활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들끼리 때지어 다니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우리가 숙소를 나갈 때면 항상 코사투에서 차량과 안내 등 모든 것을 일일이 챙겨주었다.

우리는 2000년 공동 May Day(노동절) 개최방안에 대해 토론할 즈음에야 이 안전의 제안자가 민주노총임을 알게 되었지만 공동개최에 방안에 대한 분반토론과 종합토론 과정에서의 반응은 뜨겁고 열렬했다. "자본의 침탈이 초국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도 국경을

넘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2000년 공동 노동절 행사는 그 첫 출발점입니다." "공동의 메이데이는 세계화·신자유주의 반대라는 공통의 모토를 걸어야 합니다." "민주노총에서 2000년 공동노동절을 기념하는 공동의 노래를 제작, 유통이 담긴 비디오와 함께 각국에 보내 주시면 합니다" "공동의 요구를 담은 각국의 메이데이 포스터를 상호 교환하고 공동의 인터넷 웹사이트 구축하도록 합니다." "특히 공동의 노동절 행사를 위해 힘차게 투쟁하는 나라 노동조합이 여는 노동절 행사에 각국의 지도부를 파견하여 국제연대를 실천합니다." 등등의 제안이 쏟아져 나왔다.

마지막 10월 29일 남반구 연대회의 종합 토론에서는 ▶리오턴토 투쟁에 대해 연대하기 위하여 각 국 산하 조직에 선전 홍보한다. ▶세계화에 반대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각국의 노조들이 국제자유노련(ICFTU)에 적극 참여하여 세계화의 문제점을 비판한다. ▶각국의 노조들과 조합원들간의 적극적인 교류 및 연대를 추진한다. ▶2000년에는 낮은 수준이라도 공동의 메이데이 행사를 개최한다. ▶2000년 메이데이에

는 규모 있는 행사를 진행하는 나라나 국제연대가 절박한 나라를 정하여 남반구 연대회의의 참가 대표단이 함께 모여 노동절 행사를 공동으로 연다. ▶공동의 메이데이 주제는 세계화·신자유주의 반대이다. ▶한국의 민주노총에서 공동행사를 기념하는 노래와 울동을 만들어 전세계에 보급한다. ▶연대와 홍보를 위해서 공동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이와 같은 실무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만든다. 이상의 내용을 채택하고 남반구연대회의는 5일간의 회의의 막을 내렸다.

코사투 여성 그리고 자유

“당신은 사회주의자인가”라고 코사투 형제들이 질문을 해올 때 대부분의 우리나라 참가자들은 “나는 휴머니스트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북한에서 왔는가”라는 물음에 “남한에서 왔다”라고 강조하여 대답할 때마다 분단조국에 살고 있다는 자각에 가슴이 답답했다. 1백70만 조합원을 지휘하고 있는 코사투의 많은 간부들은 아프리카민족회의(ANC)와 남아프리카공산당(SACP)에 동시에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또한 코사투(COSATU)-아프리카민족회의(ANC)-남아프리카공산당(SACP)의 3자동맹을 적극 지지하고 있었다. 코사투와 그 산하 조직들을 방문했을 때 ANC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얼마나 정열적으로 선거참여를 조직했는지를 보여

주는 다양한 포스터와 캠페인을 위한 홍보물을 볼 수 있었다.

코사투는 3자동맹 강화를 통해 남아프리카가 처한 빈민층의 복지확대와 민주주의 확대발전의 문제 등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3자동맹을 통해 코사투의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ANC정부는 부익부빈익빈 심화 등 자본주의의 야만성을 반대한다는 반자본주의의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용하려는 입장으로 기울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래서 코사투는 대중투쟁을 통해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시하려는 정부를 견제하고 있다고 했다. 코사투가 대중의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대중투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3자동맹이 가능하고, 이 3자동맹을 지렛대로 정권참여 전술과 대중투쟁 전술을 적절하게 구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여전히 정치 문제로 투쟁하고 있는데 우리 역할은 정부가 극빈자를 위한 정책 즉, 교육 공공 운송 의료 등이 개혁되도록 정부를 압박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대기업 민영화로 개인 비용이 많이 들고, 공공 서비스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서비스 강화가 요청되고 있다. 세계화와 관련하여 극빈자를 위한 보장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의 사회적 권리 보장과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투쟁한다. 이러한 투쟁은 모든 산업(농업까지)을 포괄

1백70만 조합원을 지휘하고 있는 코사투의 많은 간부들은 아프리카민족회의(ANC)와 남아프리카공산당(SACP)에 동시에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또한 코사투(COSATU)-아프리카민족회의(ANC)-남아프리카공산당(SACP)의 3자동맹을 적극 지지하고 있었다.

하며 모든 노동자들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국경제발전노동위원회(NEDLAC)에 참여하여 법을 만들고, 지방차원에서 기구가 있어 지방차원의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코사투 사무차장의 말에서 코사투의 투쟁력과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부러웠던 것은 코사투나 급속노조 등 산별노조들이 각각의 사회주의를 포함한 다양한 주의주장과 다양한 노선들이 있음에도 토론을 통해 조직적으로 하나의 전략과 전술로 통일시켜내는 지력이었다. 이 지력에 대해 코사투 간부는 이렇게 설명했다. “아파트레이트 반대투쟁(인종차별 백인통치 반대투쟁)을 전개하면서 모든 종류의 사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찾으려는 것은 진보적 민주주의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며, 우리는 민주주의의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확대는 남아프리카공산당(SACP)과 아프리카민족회의(ANC)가 극빈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을 펼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핵심은 사상이 아닌 민주주의의 확산이고 진보적인 관점에서 이를 조직해

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코사투 대의원의 30%를 여성으로 확보하고 중앙지도부의 6명중 2명을 여성으로 세우는 등 진보적인 원칙들을 실천하는 코사투의 실천은 존경스러웠다. “여성이 노동운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절반의 승리밖에 쟁취할 수 없다.. 대의원의 과반수를 여성으로 세울 때까지 이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는 코사투 수석부위원장의 말은 그들의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었다.

춤추며 싸우는 코사투의 간부들

남아프리카에 다녀오기 전까지는 비행기 타브기를 소망하는 아이들처럼 비행기를 탄다는 그 자체로도 상당한 즐거움이었다. 어쨌든 이번이 가장 오랜 시간 질리도록 비행기를 탔고, 아무리 줄이더라도 하루에 영어를 10마디 이상을 직접 말해야 생존권이 보장되는 땅에 가장 오랫동안 있었고, 김치와 된장국을 안먹고도 14일을 버텼다. 날마다 끼니때마다 남아프리카의 주식인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찰기가 하나도 없어 굴러다니는 쌀밥(?)에 우유, 쏘시지, 콘푸레이크, 식빵

에 잦은 질리도록 먹었다.

우리는 금속노조 본부와 지부, 코사투 본부, 공공노조 본부를 니홀등안 방문하여 간담회를 진행했다. 17개 산별노조 1,700,000명의 조합원을 아우르는 코사투는 10층 짜리 빌딩을 소유하고 있었다. 코사투는 그 중 2개 층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코사투 부설 연구소인 전국노동경제발전연구소(NALEDI)와 남아프리카 공산당(SACP)이 각각 한 층씩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20만명의 조합원을 자랑하는 금속노조(NUMSA) 사무실의 풍경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고풍스런 단독 건물을 쓰고 있었다. 건물 내에서는 “금연”을 실천하고 있었고, 곳곳에 AIDS 반대와 ANC 지지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노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간부들 중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은 선출직이고, 나머지는 간부들은 채용 상근자와 현장에서 올라온 간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노조에서 급여를 부담하는 채용 상근자의 규모만도 280명 정도라고 했다. 여기에서도 특히 바쁜 부서는 조직과 단체교섭이 통합된 부서인데 이 조직담당자들은 거의 24시간을 일한다고 했다. 지부 반대편에서 노동운동을 하는 그들이지만 얼굴 색깔과 말이 다름 뿐 조직담당의 시원시원한 불임성과 결박한 말투는 그야말로 조직담당감이었다.

단체협약은 사용자단체와의 통일교섭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금속노조는 엔지니어링, 자동차, 타이어, 모터의 4부분으

로 나눠 해당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단협은 엔지니어링은 엔지니어링만, 모터는 모터만 적용 받는 등 해당 부문에만 적용되지만 비조합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고 했다. 공공노조의 경우는 단체협약을 중앙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체결한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법을 개정하여 4개 부문으로 교섭을 분산시켜 부문별로 임금 인상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비웠으나, 현재까지는 중앙차원에서 단일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코사투는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고 체계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코사투의 교육 사업은 현장위원들(shopstewards)을 위해 노동관계법, 투쟁방안, 여성캠페인 등에 대한 선진 교육사업을 집중적으로 전개한다고 했다. 또한 매달 한 번씩 중앙의 핵심 간부 교육도 전개한다고 했다. 금속노조의 경우에도 교육담당 부서기 따로 있고 자체 교육역량으로 교안작성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역의 교육 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을 코사투에 의존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문맹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간부들에 대한 교육체계가 잘 짜여져 있고, 일반 조합원들을 위한 교육은 문맹퇴치 교육 등이 수행되고 있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6,000명의 현장대표 전원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킨다고 한다. 이 교육에서는 단체협약과 현장위원의 지위와 역할 교육은 물론 현장위원들에게 필요한 정

민주주의의 확대는 남아프리카공산당(SACP)과 아프리카민족회의(ANC)가 극빈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을 펼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남아프리카 노동운동가들은 그들의 핵심은 사상이 아닌 민주주의의 확산이고 진보적인 관점에서 이를 조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치, 경제, 세계화의 영향, 신자유주의의 제, 국제 정세 등 모든 종류의 주제들을 교육한다고 했다. “우리의 목적은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다”는 코사투의 교육방침에서 민주노총과 우리 노동조합의 부실한 교육사업이 부끄럽기만 했다.

나는 아직도 코사투의 간부들을 생각할 때면 코사투의 수석부위원장이 남반구 연대회의 사회를 보면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장면을 떠올리게 된다. 풍부한 조크와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내게 하고 하나로 모아내며 살아있는 토론문화를 이끌어 가면서도 의장석에 서서 참가자들과 함께 몸매 배인 노래와 춤을 추는 모습... 진통민요에 변혁의 의지와 사회 진보의 꿈을 담은 코사투의 노래는 낮은 음에서 시작한 노래가 점점 빨라지고 신명이 자연스럽게 몸으로 몰려 나오면서 하나로 어우러지게 만드는 힘이 느껴졌다.

우리나라에서 논쟁이 되었던 사회적 조합주의(Social Unionism)에 대해 물어보았다. 사회적 조합주의에 대한 코사투의 생각은 그 동안의 코사투의 투쟁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방향이라는 답변이다. “그 동안 코사투의 현장투쟁은 임금 상승에 맞춰져 왔다. 이에 노조운동의 전

략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무와 사회적 기여(Social Service)라는 고민 속에서 나온 개념이다. 따라서 정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NGO 등 사회단체와 함께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참여해서 전체 의제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이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조합주의이다.”

또한 코사투는 1985년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주의 강령을 채택했는데, 이는 “자본주의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할 것으로 인식했고, 국가의 사회적 서비스와 부를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 자본주의 야만성에 대하여 사회주의 저항을 분명히 하는 코사투! “우리의 핵심은 사상이 아닌 민주주의의 확산이고, 진보적인 관점에서 이를 조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코사투 형제들은 말한다. 방문여행을 마친 지 한참이 지난 지금에도 헌신적인 삶과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코사투형제들의 정감 어린 얼굴, 신명나게 춤추는 몸짓이 떠올라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낀다. ❖